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sr@keri.org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의 생활비 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제 원유가격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다 환율상승이 겹치면서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의 교통비지출과 음식료품 지출이 늘어나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말 현재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5.5%,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생활물가지수는 7.0% 상승하여 역대 10년 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역시 무색하게 되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대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석사
-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경제학박사
- 서민생활안정을위한 물가대책의 평가(한경연), 올림픽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공저, 굿인포메이션) 등

물가상승은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비위축, 수출경쟁력의 하락, 경제성장의 둔화, 일자리 상실 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두려워한다. 이미 우리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물가 급등과 경기둔화를 경험한 바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에 의한 어려움은 과거 오일쇼크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원유가, 환율 상승과 물가

최근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생활물가의 상승은 국제 원유가, 곡물가격의 급등과 환율상승이란 악재가 동시에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 원유가(원화기준)는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106.1% 상승했고, 밀은 127.5%, 옥수수는 75.6%나 상승했다. 수입물가 상승의 45.4%는 주로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에 의해 초래되었다. 수입물가는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국내 수입가격을 더욱 인상시켰다. 달러화 기준 수입물가와 원화기준 수입물가를 비교해보면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의 약 34%정도가 환율상승에서 때문에 일어났다.

그 외에도 액화천연가스, 나프타, 철광석 등 기초 원자재의 수입가격도 크게 올랐다. 당장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수입물가상승이 생산자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소비자물가상승으로 파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

원유, 곡물과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국내 생산자물가를 크게 상승시킨다. 이로인해 교통비, 식료품비, 외식비 등이 상승하고 있다. 즉, 원유가 상승은 중유, 나프타, 등유,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상승을 가져온다. 밀가격 상승은 밀가루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국수류, 빵, 과자류, 배합사료 등의 가격상승을 가져온다.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전분(녹말)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각종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키며, 사료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의 가격상승을 가져온다. 환율상승만으로도 수입물량이 많은 각종 석

유화학제품과 철광석, 비철금속류의 가격상승이 초래된다.

이처럼 원자재의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기업에게 커다란 원가상승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아직 업계는 제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가상승이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내물가상승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더욱 어려워질 서민가계

국제 원유가 상승은 당장 휘발류, 경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밀,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식료품비 지출을 늘려 서민들의 식료품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2개 품목의 물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152개 품목으로부터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서민생활과 관련된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서민물가지수는 작성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과 그 가중치,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52개 품목(실제 소비자물가 작성기준으로 72개 품목)으로 서민물가지수를 작성해 보면, 금년 6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서민생활물가(주거비포함)는 7.7% 상승하고 있다.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서민물가지수는 무려 9.1%나 급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5.5%, 생활물가(주거비포함) 6.3%,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생활물가 7.0%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크게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품목들로만 서민물가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원인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휘발유·경유 가격의 상승과, 밀·옥수수 가격의 상승과 관련된 식료품 가격 및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서민생활물가가 금년 6월 전년 동월대비 7.7%가 증가하고 있는데 19.8%에 해당하는 1.5%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의해, 16.7%에 해당하는 1.3%는 경유가격의 상승에 의해 그리고 9.3%에 해당하는 0.7%는 등유가격의 상승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비, 학원비를 포함하면 무려 61%가 6개 품목의 가격상승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에서 서민생활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보다 높다. 따라서 서민들의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 저소득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초래된 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자물가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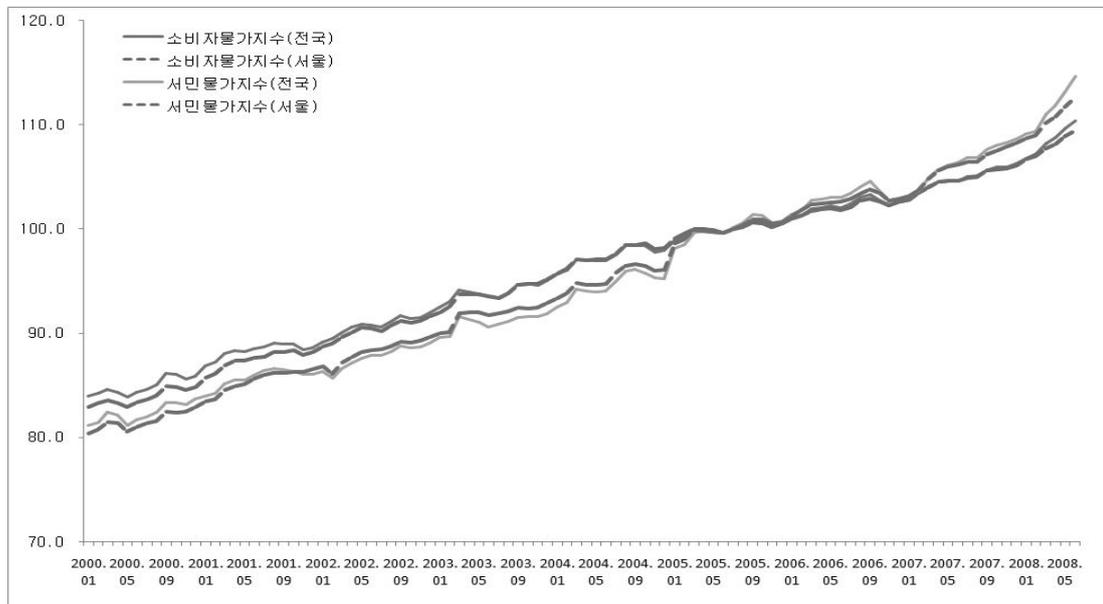
<표 1> 서민생활물가 구성 주요 품목의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2008년 6월 현재(%)		
	2008년 4월	5월	6월	기여도	기여율	누적 기여율
소비자물가지수	4.1	4.9	5.5	-	-	-
생활물가지수 (주거비포함)	4.7	5.4	6.3	-	-	-
생활물가지수	5.1	5.9	7.0	-	-	-
서민생활물가지수(주거비포함)	5.9	6.7	7.7	7.7	100.0	-
서민생활물가지수	6.8	7.8	9.1	-	-	-
휘발유	11.5	16.3	22.8	1.5	19.8	19.8
경유	30.4	40.7	51.3	1.3	16.7	36.4
등유	31.2	46.4	64.0	0.7	9.3	45.8
납입금	6.6	6.7	6.7	0.6	8.0	53.8
학원비	6.2	6.0	6.0	0.6	7.2	61.0
주거비	2.1	2.2	2.4	0.5	6.0	67.0
LPG	22.6	24.1	32.4	0.4	5.7	72.6
돼지고기	12.9	24.7	27.2	0.4	5.3	78.0
도시가스	14.5	10.4	10.5	0.4	5.0	83.0
보육시설이용료	6.6	6.6	6.6	0.2	2.0	85.0
공동주택관리비	5.9	5.3	5.5	0.1	1.9	86.8
빵	11.5	11.9	12.4	0.1	1.5	88.3
쌀	3.5	4.2	4.2	0.1	1.4	89.7
이미용료	4.4	4.8	5.4	0.1	1.4	91.1
자장면	14.2	14.0	13.8	0.1	1.1	92.3
스낵과자	16.6	16.0	15.7	0.1	1.0	93.3
라면	14.6	14.4	14.5	0.1	1.0	94.3
달걀	24.6	21.9	20.6	0.1	1.0	95.3
목욕료	8.4	7.8	9.0	0.1	0.9	96.1
바지	1.6	4.4	4.4	0.1	0.8	96.9
외래진료비	2.0	2.0	2.0	0.1	0.7	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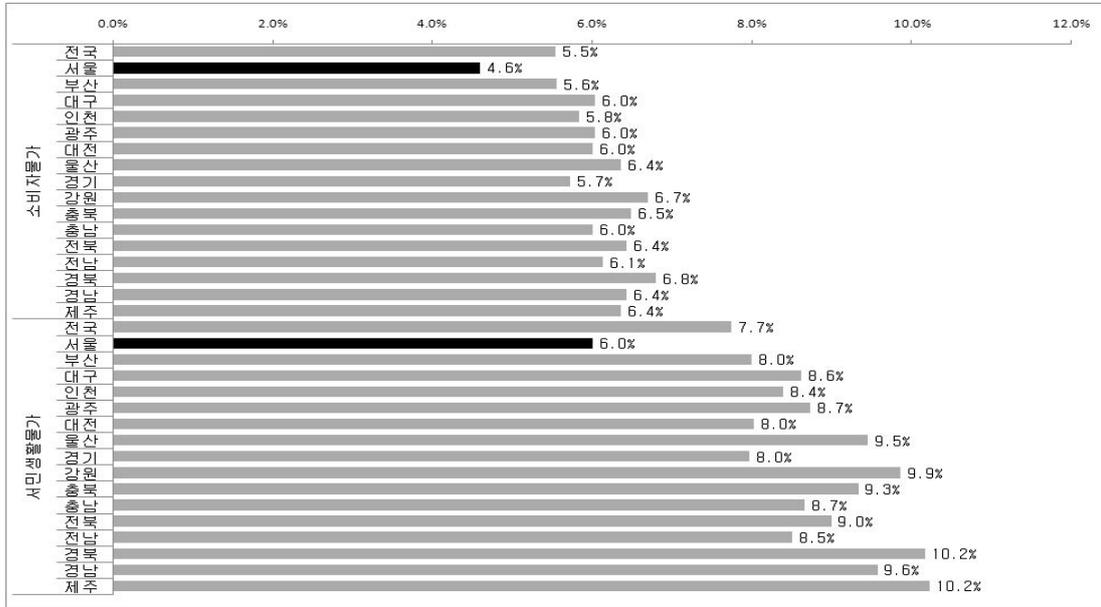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에 직면해 있다.

전국적으로 서민생활물가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의 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민들이 접하는 어려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다.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2008년 6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한데 비해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0.9%포인트 낮은 4.6%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서민물가의 경우 전국은 7.7%상승한데 비해 서울의 경우 6.0%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서울의 물가가 1-2%포인트 적게 올랐지만 강원, 경북, 제주도에 비하면 3-4%포인트나 적게 올랐다.

이처럼 서울의 소비자물가, 생활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서울은 주거비 가중치의 크기가 타 지역에 비해 큰 반면, 다른 지역에 비해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중치는 낮기 때문이다. 즉, 최근 물가상승은 국제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유류의 가격상승이 현저하기 때문에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 유류가격 상승이 타 지역에 비해 적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전국 및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서민물가지수 추이



<그림 2> 지역별 소비자물가와 서민물가 상승률 (2007:6-2008:6)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

정부는 최근(6.12)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직접적 규제에 대한 부작용 인식, 해당업체·업체의 반대, 직접적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직접적 규제보다는 경제체질 강화, 안정적 거시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무척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의 동결, 국제유가나 곡물가격 상승과 큰 관련이 없는 교육비 등 서비스업종의 물가관리, 이자율, 재정지출의 조정과 같은 거시정책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해도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한 물가안정을 달성할 획기적인 대안은 없다.

우리는 이미 제1, 2차 오일쇼크, 외환위기 때 물가상승과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바 있

다. 1970년대 초반 제1차 오일쇼크는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경기 역시 크게 후퇴시킨 사건이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오일쇼크 역시 국내 물가상승과 경기후퇴를 가져왔다. 1997년 외환위기는 환율인상으로 인해 해외원자재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이것 역시 경기를 크게 후퇴시켰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 원유수입가격의 급등에 따른 충격과 비슷하다. 따라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행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적 정책구사,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때 물가상승은 최소화될 것이다. **SDI**